◈'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94 예수사랑큰잔치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활용하자

금주부터 제1신을 보내야 초청날짜에 맞출 수 있어
각자 우표를 붙인후 교회에 제출, 기도후 일괄 발송토록
7월 10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제1신 발송

▲ 그리스도의 편지—장년용 제1신

'94예수사랑 큰잔치의 전도운동이 오늘 태신자카드를 작성, 제출함으로 본격적인 진행에 들어섰다. 그동안 기도하며 살펴서 작성한 태신자카드를 중심으로 태신자들을 접촉하여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놓여졌다.

그러나 막상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면박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처럼의 전도할 기회를 잃고 만다.

과연 어떻게 해야 쉽고 거부반응없이 복음의 문으로 대상자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들에게 거부감없이 접근하여 접촉점을 이루고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 내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불신자들에게 쉽게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교회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예수사랑 큰잔치부터 사용해 온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간 중 한 주일에 23,000통이 훨씬 넘는 편지는 매주일 강대상 위에 수북히 쌓여 당회장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후에 대상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3가지 종류가 나와 있다.

씨앗(불신자에게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는 전도용 편지), 새순(장기 결석자들에게 새로이 믿음의 순을 티우기 위한 편지), 열매(새로운 결신한 새신자를 성숙시켜 열매맺기 위한 양육용 편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당 로비에는 씨앗편지만 준비되어 있으므로 성도들은 혼돈없이 편지를 받을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능한 모든 통로를 마련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편지를 활용하는 온 교우들의 마음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류의 편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낼 때 효과가 있게 됨을 인식하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명을 반드시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겠다는 견고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금년 예수사랑 큰잔치는 장년을 위주로 할 때 열두번의 새신자용 씨앗 카드를 다 보낸 후 초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퍽 기대가 되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본당 로비에서 가져다가 작성하여 각자가 우표를 붙인 후 교회에 가져와 교구 간사에게나 교구모임시 제출하면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함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전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각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충현교회의 세례교인으로 음악에 소질이 있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찬양대원이 될 수 있다.

- 기간 : 1994. 6. 26 - 7. 31
- 접수 : 사무국(지원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

학습 · 세례식

7월 15일(금), 오후 7시, 갈릴리홀

학습 · 세례식이 오는 7월 15일(금),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베풀어진다. 따라서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및 개종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7월 10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7월 14일(목) 오후 7시까지 교육관 307호에서 예비교육과 문답을 하게 된다.

제2교육위원회

실무자 교육 실시

오늘, 오후 3:00 - 4:50, 교육관 212호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교회학교 행정실무를 위하여 '94 제1차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자는 각 부 부감(남, 여) 및 처장(총무, 교무, 생지) 및 회계로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교육관 212호실에서 모인다.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재정운영과 예산편성('95) / 최성현장로
- 바람직한 교육행정 / 박영식장로
- 교회성장과 교회학교 / 박승준장로

직원모집

교회에서는 경리사무를 담당할 여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상고를 졸업하고 PC활용이 가능한 22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희망자는 이력서(사진첨부)와 세례교인증명서 각 한통씩을 준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사무국(전화 552-8200 교환 402)

맥추감사절 지난 주일(7월 3일)은 온 교회가 94년도 맥추절을 지키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다. 저녁찬양예배시간 후에는 영아부에서 마련한 특별감사의 시간을 가져 온 교구가 즐거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현강단

그리스도의 부활

(마 28:1-15)

신 성 종
〈목사 · 당회장〉

마태복음을 보면 27장과 28장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장까지만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암울하고 슬프던 그 모든 분위기가, 28장에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부활에 관한 여러번에 걸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부활의 증거

첫째로 천사의 증거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부활하셨다, 말씀하신대로, 예언하신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빈 무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무덤이 있고 물론 그 무덤속에는 그들의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지낸바 되었지만,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빈 무덤, 우리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빈 무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파수군들의 증거입니다. 11절에 보면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도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아서 빌라도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묘지를 황제의 도장을 찍어 인봉하기도 하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파수꾼들, 그들은 빌라도의 명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반증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에 대해서 고했습니다.

넷째로 대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12-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나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갔다고 하라면서 그들끼리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음모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 찾아온 여인들

첫째로 그들은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라도, 아니 무덤을 파고 있는 안봉된 케대란 돌때문에 시체는 못보더라도,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이렇게 소망없이 슬픔에 겨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들은 암울하고 어두운 무덤에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광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더욱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달려갈 때에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들은 마침내 부활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안하뇨' 즉 '살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근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환청으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안을 통하여 실제로 보았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심하며 믿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용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그 결과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평소에 뛰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음박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매수된 파수꾼들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는 대조가 되는 매수된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된 파수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고, 돌을 굴리고,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눈같이 흰 부활하신 주님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이들은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신앙이 없으면 천사를 보아도 두려운 것입니다.

또 11절에 "여자들이 갈새 파수군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천사도 보았고, 돌이 구르는 것도 보았고 가장 역사적인 그 모든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 파수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만 그러한 축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에 그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4. 부활의 의미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부활의 의미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부활했으니 그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줍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약속,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중요한 것입니다.

(2)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의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주님을 배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부활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들에게 "평안하뇨"라고 했을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간직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빨리"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험난한 광야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부활의 첫열매되신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부활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예배시간에 만난 멋진 하나님

구 영 자
(집사, 제11교구)

7월 3일 3부 예배시간은 참으로 뜨거운 감사가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감동의 시간들이었다.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에든지 항상 감사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은 나의 지난 1년간의 기도생활을 되돌아 보게하며 작년 맥추절(7월 2일) 때의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다.

맥추절을 지키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1. 감사하며 충성하고 2. 회개하며 3. 바로 살자 결심하며 4. 구제하며 5. 화목제로 내 자신을 드리자 라는 5가지를 지키며 맥추절을 보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주신 것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초대교회와 구약시대의 교회성도들을 본받아 우리는 한 가지 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맥추절을 지킵시다라고 자세하게 풀어주셨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오! 멋진 하나님. 바로 어제(7월 1일)부터 시작한 작정기도_ 그것은 나의 기도제목과 너무나도 꼭 같은 것이었다. 이 기도제목들은 물론 기일안에 모두 말씀으로 응답되어졌고 또한 제목마다 갖가지 체험으로 인하여 연약했던 나의 믿음이 굳건해진 계기가 되었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의 순간이 되어졌다.

예배시간 내내 나의 심령은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을 뜨겁게 뜨겁게 받아들였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가_ 지난 1년여 동안 충현 기도원으로 새벽기도를 다니는 나에게 너무나도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기뻐 뛰며 기도원을 오르내렸던 그 많은 시간 시간들이 오늘 신성종 목사님의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내 가슴속에 감사가 물결치는 진한 감동으로 예배시간 내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도 두배 세배의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징검다리

남성구역을 실시하며

제한받지 않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역사

조 동 원
(목사, 제9교구, 출판국 안수집사회 지도)

매주 구역예배의 보고서를 보면서 참석하는 인원들이 여성도들에 국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이 늘 마음에 걸렸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성도들도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개월간을 기도하며 기다리다 5월 교구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자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반응은 별로였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모임장소였다. 어느 가정에서 모이느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응을 보고서 아직은 불가능하구나 생각하고 열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말로서 의견제시를 끝냈다. 그리고 두 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제는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에 최지윤 집사님께서 남성구역 모임 장소로 당신의 가정을 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남성구역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군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모임 일시가 결정되었다. 6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였다. 전날에 모임에서 쓸 교제를 15인분을 준비하였다. 그정도 모이면 많이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일이 되어 최집사님 댁에 기대를 가지고 갔다. 모인 숫자는 16명이었다.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적음을 회개했다.

구역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는지에 대하여 함께 신앙간증을 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순간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생활하는 기쁜 일들을 그 곳에 모인 형제들이 함께 부끄럼없이 말하게 되었다. 어떤 분을 병상에서, 어떤 분을 회식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은 술자리에서 조차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모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각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임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장로님, 집사님들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내면의 신앙생활을 남성도 구역예배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 첫번째 남성도 구역예배를 마쳤다.

이렇게 남성도들만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림으로 서로서로를 더욱 깊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아직은 미약한 모임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다른 활력소가 되었음을 확목한 분위기를 통하여 느끼게 되었다.

물맷돌

가르침의 중요성

미국이 낳은 위대한 여가수를 둘만 들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간에 얼마전에 타계한 마리안 앤더슨과 마아리아 잭슨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흑인이며, 독실한 크리스챤으로서 주로 영감넘치는 영혼의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다.

그런데 앤더슨은 정식 음악교육을 받은데 비해, 잭슨은 악보를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다고 한다. 잭슨은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육도 별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둘다 위대한 가수였지만 앤더슨은 후배양성이 가능했을 것이고, 잭슨은 후배양성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는 위대한 '신앙인'만을 키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선배'도 키워야 한다. 자기 혼자 애쓰고 힘써 일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후배를 돌보는 '신앙의 선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체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운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94 충현 단기선교훈련

태국 난민촌 구호물품 수집

7월 31일(주일) 오후 5시까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서

한국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견학하고 해외선교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자 모집된 태국단기선교팀은 지난 5월말까지 35명이 모집되어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7:30~9:30까지 선교특강, 찬양, 선교인형극, 기도회 등 다양한 영성훈련을 하고 있다.

'94 충현 태국단기선교훈련단은 8월 2일(화) - 11일(목)까지 태국의 서북쪽의 메솔, 메라 그리고 동북쪽의 우돈타니, 넝카이 등의 현지교회와 버마, 라오스 국경의 난민촌 중심으로 현지 한국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지원, 전도집회, 노방전도, 의료진료, 이·미용 봉사, 구제활동, 계몽활동 등 다양한 선교활동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버마, 라오스 국경의 난민촌과 카렌(산지족) 선교를 위해서 많은 구호품이 필요로하고 있어 현재 수집중이다. 헌옷(여름용), 라면, 비누, 치약, 칫솔, 각종 영양제, 기타 생필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7월 31일(주일) 오후 5시까지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학교가 방학으로 접어들며 대학부에는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교우 중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학부로 연락하면 성실하고 분명한 학생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연락처는 평일은 교회(552-8200, 교환 351 - 장봉생 목사), 저녁이나 휴일은 장봉생 목사(569-4246)로 하면 된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0일(주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주일예배 설교, 14일(목) '94 서울성령화 대성회 축도(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평양노회 부흥회설교(방주교회)
   - 신성종 목사님 : 11일(월) '94 횃불성회 설교(횃불회관 사랑성전), 14일(목) 국회조찬기도회 주최 제헌절 기념예배 인도(여의도 침례교회)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며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국정을 살피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정상회담에 임하게 하옵소서.
4.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계절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 기독교 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5.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인 수리남의 한인교회와 원주민 선교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사랑하는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 드리며 같은 은혜와 사랑을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선교위원장님과 모든 충현교회 성도님들께 전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되기를 원하며 지난 두달 동안 승리한 소식을 나누고저 합니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 파라과이 / 변웅자 · 오경희 평신도선교사 ◆

이처럼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1. Centro de Vida 교회소식

지난 두 달 동안 세 차례에 거쳐 천정 슬라브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장마 기간이라 비때문에 몇 차례 공사일정에 변경되기도 했었고, 물, 전기, 재재 부족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어 야간작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어 성전 본래의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속히 완공되어 헌당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건축현장에 가서 철야기도하며, 매주 Pancho(소에게 끼운 빵)를 만들어 판매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력해가며 물질을 모으고 있지만 큰 공사를 감당해 나가기에 힘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더욱 더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천막 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추위와도 싸워야 되고 비가 내리면 마당이 물로 꽉 차게에 토요일, 주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하는데 좋은 일꾼들과 사고가 없도록, 1억원 정도의 나머지 예산도 채워주시게를 기도합니다.

5월 15일은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청년들과 함께 새벽 5시까지 27가정을 방문하여 세레나데를 부르며 각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않던 어머니들께서 참석하셔서 주일 대예배에는 장년만 162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청년들이 준비한 연극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부 순서를 가졌는데 자리가 부족하여서 어린이들은 공터에서 별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예쁜 꽃으로 84세 되신 Echeverria 할머니를 비롯하여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리고 성도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들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일마누엘 봉제공장에서 직장선교예배를 드리는데 사업확장으로 새로운 예배실에서 120명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월 6일부터 한나봉제공장에서 첫 직장선교예배를 드렸습니다. 20명의 적은 직원들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마약판매업자인 Taboada씨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여 놀라운 지적이라고 외쳤었지만 사실은 청년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기 위하여 왔다가 도저히 불가능하여서 저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Natalia학생이 마약과 관계되어서 한 달에 20일 매상씩 거출하던 아이가 부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 지금은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신학생인 Alejandro와 함께 성경공부도 시작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Paraguay 소식

5월 2일에는 36년만에 처음으로 파라과이에서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으로 민심을 잃은 정부는 국민들의 반응에 대처할 수 없었지만 속히 경제회복이 되어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교포들마저도 경제불황으로 인한 채무관계로 자살을 하는 등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되었으며, 교포들 90%가 미국에 망명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를 미국으로 이민가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으로 생각하기에 원주민들에게는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국인 선교사들에겐 어려움이 있으며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전쟁으로 불안한 한국의 상태로 인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전쟁 없는 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개인소식

변웅재 선교사는 찬양과 심방사역을 중심으로, 또한 구역성경공부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개척은 어린 아이를 대해듯이 집회시간 전에 찾아가서 함께 지내며 교회로 데려오곤 했지만 이들이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서 고냥 혼자 돌아올 때는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하며 참 자유되신 그리스도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전으로 기쁘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경희 선교사는 율동과 Worship Dance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새신자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일학교 찬양에 율동을 재작해서 율동팀과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부 집회와 주일 대예배시에는 Worship Dance로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한 가운데 양창근, 박경주 선교사님을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더욱더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원주민들을 섬기며 그들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과 파라과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느끼며 교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파라과이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함께 힘쓰는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다음에 또 승리의 소식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1994. 6. 21.
땅끝에서 부족한 종
변웅재 · 오경희 선교사 드림

◈ 기도부탁 드립니다.

1. 성령충만하게 해소서
2. Centro de vida 성전건축을 위하여(부족한 물질들을 채워 주소서)
3. 12명의 제자훈련 받는 청년들이 주 안